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09호 【루게 제24887호】 주제104(2015)년 4월 19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 성원들을 만나시고 고무격려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명령에 따라 지난 4월 11일부터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을 진행하였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4월 17일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전투비행사들을 현지에서 만나시고 고무격려해 주시었다.

황병서 동지, 최룡해 동지, 김양건 동지, 리재일 동지, 리병철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뵈는 참관동지, 오금철 동지, 최영호 동지, 손철주 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 지휘성원들이 맞이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도착하시



심정을 금할수 없었는데 이렇게 만나니 백두산전적지에서 항일혁명투사들을 만난 심정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모든 국사를 뒤로 미루고 수천리길을 달려온것은 사랑하는 전투비행사들과 맺은 정맥문만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을 눈바람세찬 백두산지구에서 보낸 동무들의 심장마다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더 깊이 심어주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전투비행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것은 혁명적신념이라고 하시면서 하늘에서의 대결전은 사상과 신념의 대결전이며 물리설 길이 없는 하늘싸움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근본요인도 혁명적신념, 혁명정신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자 행군대성원들은 전투비행사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몸소 조직해주시고 친어버이의 사랑으로 답사행군 전 과정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었으며 오늘은 자기들을 만나주시려고 수천리 먼길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예위병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었다.

<애국가>가 주악된 다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예위병대를 사열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전투비행사들이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장병들의 열화와 같은 흙모의 정이 담긴 꽃다발을 삼가 드리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삼자연대기념비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앞 교양마당에서 진행된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의 결의대회에 참석하시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직하게

만들어나가는 김정은 육관결사대로 더욱 역세계 준비할것을 맹세하는 결의대회에는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앞에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군기들이 세워져 있었으며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예위병들이 서있었다.

결의대회장소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혁명사상 만세!>,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 만세!>,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는 구호들이

계시되어있었다.

결의대회는 노래 <우리는 출격명령만 기다린다>의 합창으로 시작되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선군혁명의 시원이 열리고 조선혁명의 뿌리가 내린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에서 동무들을 만나니 정말 기쁘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한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이 보고싶었다고, 답사행군에 참가한 동무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매일같이 보면서 만나보고싶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사들이 간직하였던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를 가슴깊이 쏘아박고 꺾이지안정 굽히지 않는 불굴의 신념을 지닌 강자들만이 하늘초소를 지킬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사들의 혁명적신념과 정신은 구호나무의 글발이나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에만 남아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천만군민이 투사들의 불굴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본받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2 면 으 로 계 속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 성원들을 만나시고 고무격려해주시었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백두의 혁명전통, 백두의 혁명정신을 떠나 조선혁명의 승리를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백두산을 안고 만난시련을 이겨내고 싸워 이긴 투사들처럼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며 투쟁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고 백두의 혁명전통을 계승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항공 및 반항공군의 싸움준비완성과 전투력강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전투비행사들은 우리 당의 사상과 위업의 제일신봉자, 제일관철자가 됨으로써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를 실현하는데서 전군의 앞장에 서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전투비행사들은 항상 우리는 당의 출격명령만 기다린다는 구호를 들고 경상적인 전투동원태세를 견지하며 당과 혁명을 하늘길에서 보위하는 일당백의 붉은 참매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끝없이 맑고 푸른 조국의 하늘을 전투비행사들에게 전적으로 맡긴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지켜낸 영웅한 전투비행사들과 언제나 함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전투비행사들이 영광의 날에나 시련의 날에나 조국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잊지 말고 죽어도 당의 품속에서 영생하겠다는 투철한 각오로 심장을 불태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모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심장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안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격정에 겨워 《만세!》를 부르면서 솟아치는 눈물을 견잡지 못하였다.

결의대회에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884군부대 부대장 김영진, 제447군부대 추격기비행사 김철, 제2620군부대 여성추격기비행사 조금향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백두산 줄기줄기 압록강 굽이굽이마다에 력력히 어려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심장깊이 체득하였으며 꿈결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몸가까이 모시고 강령적인 연설을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을 지닌데 대하여 격정에 넘쳐 토로하였다.

그들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답사하는 나날에 억만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를 심장깊이 받아안았다고 하면서 항일혁명선렬들의 맥동이 살아숨쉬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신념의 글밭을 심장마다에 쏘아박고 저 멀리 만리창공 그 어디에 있다 해도, 절해고도에서 굶어죽고 얼어죽는다 해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만을 믿고 따르는 길에서 추호의 변절과 배반을 모르는 신념의 인간, 최고사령관동지와 맺은 정을 절대로 팔지도 버리지도 않는 량심과 의리의 인간이 되겠다는것을 다짐하였다.

그들은 백두의 물과 공기로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백두의 칼바람속에서 일편단심 우리 당만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혁명신념, 백두산날개를 억세게 버린 김정은빨찌산의 붉은 참매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력사적인 연설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일단 명령이 내리면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찍어주신 타격목표들에 제일먼저 육탄돌입하여 멸적의 폭음, 조국통일대진승리의 폭음을 통쾌하게 울리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결의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드리는 맹세문이 참가자들

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결의대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키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의 구호를 목청껏 불렀다.

결의대회는 노래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의 합창으로 끝났다.

대회가 끝나자 또다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우러러타치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가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하늘가로 힘차게 울려 퍼지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삼지연대기범비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앞에서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성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전투비행사들이 보통때, 보통날에는 열백밤을 밝혀도 미처 다 알수 없고 말과 글로써는 체득할수 없는 백두산칼바람의 진짜맛을 심장으로 절감한 답사행군의 나날을 언제나 잊지 말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그 어떤 원수들도 범접하지 못하게 조국의 영광을 철옹성같이 지켜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은 전투비행사들은 위대한 수령님들만을 굳게 믿고 충직하게 받들어온 항일혁명투사들처럼 오늘의 빨찌산 김대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백두의 흰눈처럼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받들어모시며 위대한 선군명장의 힘찬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어 선군혁명천리길을 전군의 앞장에서 끝까지 걸어갈 철석의 맹세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지보도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성원들과 함께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4월 18일 새벽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성원들과 함께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황병서동지, 최룡해동지, 김양건동지, 리재일동지, 리병철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백두산해돋이를 부감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바람이 초당 25m로 강하게 불어치는 백두산정에 거연히 서시여 백두산칼바람을 한몸에 맞으시며 저 멀리 동쪽하늘가를 바라보시였다.

아침 7시 40분경, 흰 안개를 허리에 두른 백두명봉과 기암절벽들에 감색, 붉은색으로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노을이 피어오르고 삼시에 그 색깔이 점점 짙어지는 속에서 진한 불덩어리가 솟구치며 백두산해돋이가 시작되였다.

해돋이를 맞이한 백두산은 세찬 눈보라, 돌풍을 일으키며 천지조화를 일으켰다.



성원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붉은기를 휘날리며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백두산이 칼바람을 더욱 세차게 휘몰아치며 화답하였다.

맹잔 바람이 눈갈기를 날리고 돌가루를 뿌리며 눈앞을 가리웠으나 전투비행사들의 가슴마다에서는 백두의 칼바람으로 마음을 씻고 백두의 넋과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려는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가 맥동치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눈보라치는 백두산에 올라 백두의 칼바람을 맞보아야 백두산의 진짜맛을 알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지게 된다고 하시면서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은 그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정말 멋있다고, 백두산의 기상은 볼수록 장엄하다고, 백두산해돋이는 그 어디서나 볼수 없는 황홀하고 아름다운 절경이라고,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의 새날은 백두산에서부터 밝아온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넋이 깃들어 있고 선군조선의 기상이 응축되어있는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이며 조선혁명의 발원지, 승리의 상징, 선군혁명의 영원한 등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발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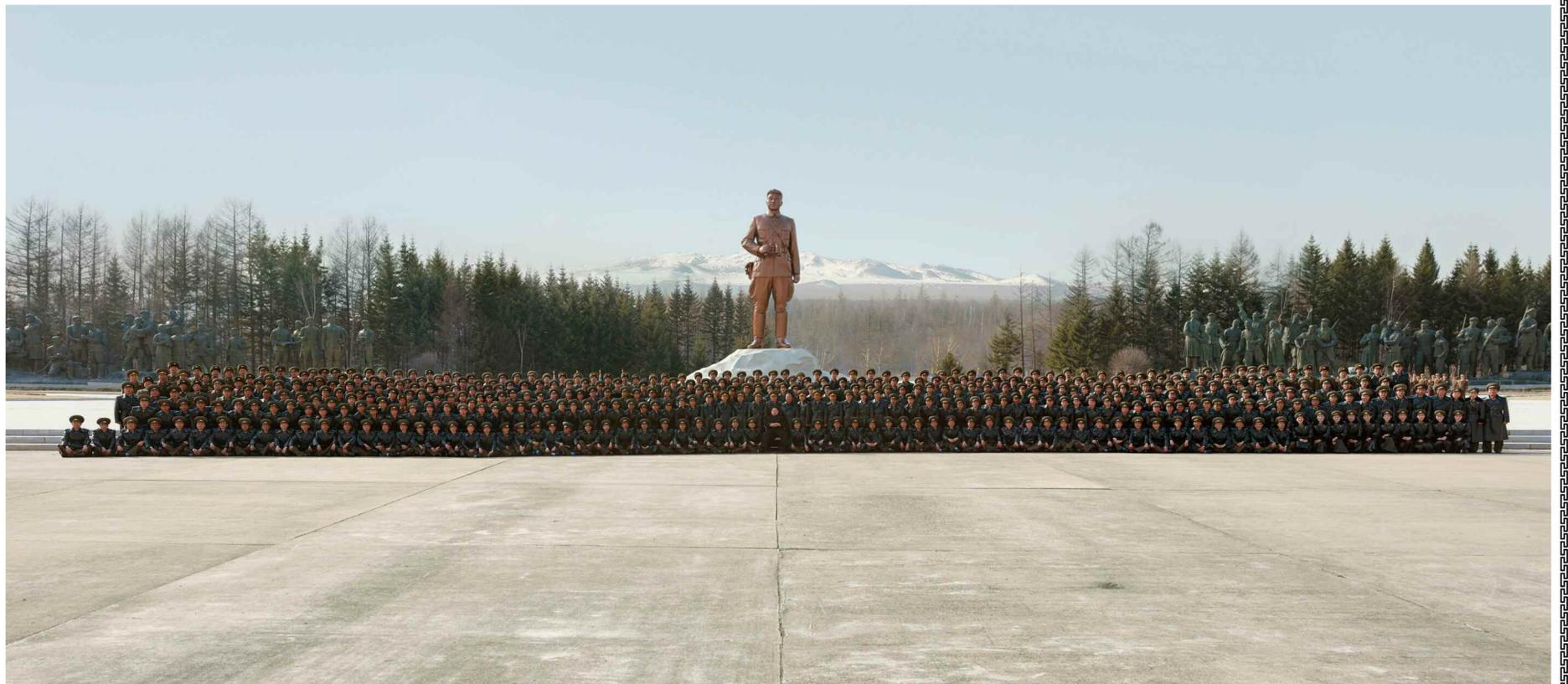
따라 설한풍이 휩쓰는 험한 산중에 결심품고 싸워가는 우리 혁명군이라는 혁명가호를 높이 부르며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가 백두산마루에 도착하였다.

백설을 날리며 세기의 하늘높이 솟아있는 백두산에 오른 답사행군대

어떤 핵무기의 위력에도 비할수 없는 귀중한 정신적양식을 안겨주는 길, 백두의 혁명전통을 빛내여가는 길, 영광넘친 조선혁명의 명맥을 곳곳이 이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4 면 으 로 계 속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 성원들을 만나시고 고무격려해주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성원들과 함께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3 면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속에 영원히 품고 살아야 할 승고한 정신이라고 하시면서 이 정신을 안고 살면 세상에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별 일도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의 행군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전투비행사들이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지켜보고있다는 비상한 자각을 안고 조국의 푸른 하늘을 지켜가는 길에서 항일혁명 선렬들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선군혁명의 계승자로서의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백두산정에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전투비행사들이 부르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 구호의 함성이 백두산 하늘가로 울려 퍼지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하늘같은 믿음속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한생토록 가슴깊이 간직하고 살아야 할 정신적재부를 받아안은 전투비행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와 맺은 정을 운명의 피줄처럼 간직하고 다가오는 조국통일 대전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력사가 알지 못하는 김정은육탄결사대의 하늘신화를 창조함으로써 백두산에서 시작된 하늘길을 저 멀리 한나산끝까지 반드시 이어놓을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 활동소식을 4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뜨통신은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약진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조선의 실정에 맞게, 조선식대로 새 세

계개발사업을 다그쳐야 약전기계제품생산의 주체화, 국산화를 실현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낡은 설비들을 현대화하고 생산원가를 부단히 낮추며 기술관리, 품질관리를 더욱 짜고들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로씨야의 인터넷통신 로스발트, 도이쉴란드반제연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지지도소

식들》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네덜란드 《아르판》,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통명동무가 사임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로씨야의 스푸트니크방송, 인터넷TV 《미르 24》, 도이쉴란드반제연단인터넷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들》,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해군 제164군부대를 시찰하신 데 대하여 전하였다.

도이쉴란드의 인터넷홈페이지와 네덜란드신문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 중앙위원회에 축전을 보내었다

원드후크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 중앙위원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창건 55돐에 즈음하여 귀 당 중앙위원회와 전제 당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는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이 창건후 지난 55년간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 안정되고 발전된 새 나미비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당사자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더욱 확대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을 강화하고 나라의 사회경제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귀 당의 앞으로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제104(2015)년 4월 18일

평 양

물고기대풍을 마련하여 인민들의 식탁우에 바다향기가 차넘치게 하자

수산성 종업원들의 열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수산부문에 주신 강령적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수산성 종업원들의 열기모임이 17일에 진행되었다.

수산성 일군들, 종업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올해 어기별수산물생산산전투목표가 제시된 다음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승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불철물고기강을 펼쳐나선 서해안의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도록 짧은 기간에 1만여의 건평을 잡는 혁신을 창조하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수산성이 어기별로 어종의 주인이 되어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를 바란다

는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동서해역에서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어획조건에 맞게 어종별, 어기별에 따르는 올해 수산물생산전투목표를 기어이 넘쳐 수행하도록 할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수산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며 평등업적단위들이 물고기잡이를 비롯 모든 사업에서 본보기가 되도록 하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평도를 따를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물고기대풍을 안아오는 데 모두가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할것이다.

일군들은 낡은 사업방법에서 벗어나 불리한 어항조건에서도 물고기대풍을 안아오는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처럼 바다현장들에 적극 나가 생

산조직과 지회를 짜고들며 걸린 문제를 풀어나갈것이다.

기업소들에서는 배들의 출어일수를 철저히 보장하고 물고기잡이를 과학화하며 가공과 양어 등 모든 부문에서 앞선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할것이다.

현대적인 설비들과 어구자재들을 마음먹은대로 보장할수 있도록 수산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주체세우기 위한 계획을 전망성있게 세우고 힘있게 내밀것이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수산부문에 주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물고기대풍을 마련함으로써 인민들의 식탁우에 바다향기가 차넘치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나 불리한 어항조건에서도 물고기대풍을 안아오는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처럼 바다현장들에 적극 나가 생

산조직과 지회를 짜고들며 걸린 문제를 풀어나갈것이다.

기업소들에서는 배들의 출어일수를 철저히 보장하고 물고기잡이를 과학화하며 가공과 양어 등 모든 부문에서 앞선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할것이다.

현대적인 설비들과 어구자재들을 마음먹은대로 보장할수 있도록 수산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주체세우기 위한 계획을 전망성있게 세우고 힘있게 내밀것이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수산부문에 주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물고기대풍을 마련함으로써 인민들의 식탁우에 바다향기가 차넘치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나 불리한 어항조건에서도 물고기대풍을 안아오는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처럼 바다현장들에 적극 나가 생

선전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하자!》가 나왔다



【평양 4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만수대창작사에서 선전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하자!》를 창작하였다.

선전화에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중대한 혁명의 폭풍우를 뚫고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치며 백두의 행군길을 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상을 형상한 미술작품이 모셔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 로 뭉쳐 혁명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념과 든든한 배심을 지니고 눈보라치는 행군길을 곳곳이 걸어가시는 항일유격대원들의 불

꽃의 투쟁모습도 선전화에 진실하게 형상되어있다.

또한 선전화에는 최고사령관기와 조선로동당기울 전두에 펼쳐 휘날리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 《당정책옹위전》이라는 글씨가 쓰여진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조국의 강성번영을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 파카히 떨쳐나선 우리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기상도 반영되어있다.

선전화는 온 나라군대와 인민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승리의 진군가높이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것을 열렬히 호소하고있다.

백두의 깃과 기상이 뜨겁게 맥박치는 선전화는 천만군민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결정서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호관청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경비행기개발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군들

평양 참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우리 식의 경비행기들을 훌륭히 만들어낸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군들이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평양참관의 나날을 보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적 항공공업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며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 경비행기개발자들을 평양에 초청하여주시었다.

크나큰 격정을 안고 평양에 도착한 경비행기개발자들을 수도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열렬히 환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성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직금수산태양궁전을 찾은 경비행기개발자들은 주체적인 항공공업의 새 역사를 개척하시고 이끌어주시

에 돌아보았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진승업적과 선군혁명도업적을 다시금 깊이 체득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인민사랑속에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들로 일떠선 풍수물놀이장, 풍라공평어판, 미림승마구락부, 풍라인민유원지, 인민야외빙상장 등에서 휴식의 한때를 보내면서 또 문명하고 행복할 배일을 향해 비약하는 조국의 벅찬 승격을 새겨안았다.

평양체육기간 경비행기개발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군들에게 공화국의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과 로력영웅칭호를 비롯하여 높은 급의 당 및 국가표창이 수여되었다.

경비행기개발자들은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자기들을 한몸에 안아 사랑의 기념사전을 찍어주시고 환영연회도 마련해주시며 영광의 단상에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면서 1950년대 군사리정신으로 여러 기종의 비행기들을 개발생산함으로써 우리가 만든 비행기들이 선군조선의 하늘을 뒤덮게 할 총정의 맹세를 다지었다.

경비행기개발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군들은 평양참관의 나날에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한생토록 잊지 않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평도따라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려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 의지에 넘쳐 있다.

【조선중앙통신】

아시아아프리카수뇌자회의에 참가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 출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이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는 아시아아프리카수뇌자회의와 아시아아프리카회의(만족회의) 60돐 및 새로운 아시아아프리카전략적동반자관계수립 10돐 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18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와 리경성 위무성 부상, 방방 뿌르완도주 조 인도네시아공화국 임시대대사가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짐바브웨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하 라 레 짐바브웨공화국 대통령 로버트 지. 무가베작하

나는 짐바브웨독립 35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여러 분야에 걸쳐 끊임없이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4(2015)년 4월 18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64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라났으며 멀거진 혁명과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한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한다.

2중3대혁명붉은기

인민봉사총국 영광리내포국립 3대혁명붉은기

김철수사범대학 외국어학부 중대원구역인민병원 등산군인민병원 문덕군 룰림픽농동농장 청년작업반 염주만명승공공장 안악과수농장 서산작업반 청단군 구월협동농장 제8작업반 강계세멘트공공장 강계시 교영남새전문협동농장 제5작업반

덕산관광 로천경 평양리복공공장 1직장 평양산원 1부인과 한천수산사업소 배수리직장 맹산군목재이용물생산협동조합 신의주시 석화협동농장 수양산은하리복공공장 만포시대홍관리부 무산군 문암협동농장 기계화 작업반 대안천선유리공공장 판유리직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60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도업을 높이 받들고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기계설비와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치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과 과학지식수준을 높여 멀거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한 단위들에 2중26호모범기대예상을, 26호모범기대예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주제104(2015)년 4월 10일

2중26호모범기대예상 김책공업종합대학 로보트공학연 대동강축전지공장 조립직장 평양담배 종이공장 종이제 1 직장 남포항 부두4대 송현탄광 대동강탄광 인민문화공전

김책공업종합대학 로보트공학연 구소 안악문화리복공공장 외포단건물건설사업소 유류관

대동강맥주공장 맥주직장 26호모범기대예상 평원군 원화협동농장 강서탄광 서부경 향산군체신소

신천군광정사업소 황해남도소아병원 남포수출입물검사업소 대성산유원지종합식당 명대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65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도업을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리해》를 관철하기 위하여 2중영예의 붉은기,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한다.

2중영예의 붉은기 동림군 동림소학교 라진지구 역전소학교 사 리 현 시 구 천 고 급 중

영예의 붉은기 신령군 창정고급중학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주제104(2015)년 4월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64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도업을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멀거진 혁명과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한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한다.

2중3대혁명붉은기

인민봉사총국 영광리내포국립 3대혁명붉은기

김철수사범대학 외국어학부 중대원구역인민병원 등산군인민병원 문덕군 룰림픽농동농장 청년작업반 염주만명승공공장 안악과수농장 서산작업반 청단군 구월협동농장 제8작업반 강계세멘트공공장 강계시 교영남새전문협동농장 제5작업반

덕산관광 로천경 평양리복공공장 1직장 평양산원 1부인과 한천수산사업소 배수리직장 맹산군목재이용물생산협동조합 신의주시 석화협동농장 수양산은하리복공공장 만포시대홍관리부 무산군 문암협동농장 기계화 작업반 대안천선유리공공장 판유리직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성원들 제17차 김일성화축전장 참관

조일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와 지부성원들이 18일 제17차 김일성화축전장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류와 우리 인민들의 다함없는 그리움이 태양정승의 꽃바다를 이룬 축전장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참관을 마치고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불멸의 꽃 김일성화명명 50돐이 되는 뜻깊은 시기에 축전장을 찾으니 더욱 감회가 새롭다.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절세위인에 대한 만민의 열화같은 경모심이 김일성화에 어리어 더욱 황홀경을 이루고있다.

김일성주석님을 영연히 따르려는 온 세계와 진보적인류의 뜨거운 마음들이 김일성화를 이렇게 활짝 피었다.

위대한 태양의 존함과 더불어 세 세련된 더욱 만발하는 김일성화는 온 세상에 영연히 빛을 뿌릴것이다.

제17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하였던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이 떠나갔다

이제 앞서 김일성화김일성화비공후회회 명예회장인 일본 데비 수카르노사무소 소장일행, 중국 단둥시 리사장일행, 중국 단둥건설부 중국 역유한공사 총경리일행, 중국 단둥건설부 역유한공사 경리가 18일 비행기와 렬차로 평양을 떠나갔다.

로씨야연방 최고재판소대표단 귀국

바체슬라브 레베즈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연방 최고재판소 대표단이 18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최경영 최고재판소 제1부소장, 관계부문 일군들과 알렉산드르 마제코라 주조 로씨야연방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